



부산대학교

# 사회과학대 소식

College of Social Sciences Newsletter

## vol.10 | 미래를 움직이는 사회과학

01 학사 일정 02 학장 인사말·예원정 산책 03 예원정 산책·사회대 소식 05 학과 소식 08 신간소개

발행일 2023년 3월 10일 발행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발행인 이재식 편집인 이원익  
전화 051. 510. 1554 팩스 051. 581. 1456 홈페이지 socio.pusan.ac.kr 디자인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새내기 배움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사회대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가 3월 4일, 5일 양일 간 경주에서 1박 2일 진행되었다. 선후배 만남의 자리로 마련된 새내기 배움터는 사회대 구성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학사일정

|                |                                   |
|----------------|-----------------------------------|
| 3. 2.          |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1학기 개강           |
| 3. 2. ~ 8.     | 2023학년도 1학기 1차 수강정정               |
| 3. 13. ~ 17.   | 학위논문제출자격 자격시험                     |
| 3. 16. ~ 17.   | 2023학년도 1학기 2차(최종) 수강정정           |
| 3. 30. ~ 4. 5.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W)               |
| 4. 5.          |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             |
| 4. 6.          | 2022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
| 4. 17. ~ 22.   |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
| 4. 24.         |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2선             |
| 5. 12.         |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2/3선             |
| 5. 15.         | 개교기념일                             |
| 5. 29. ~ 6. 9. |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
| 6. 8. ~ 13.    | 2023학년도 1학기 휴업일에 대한 지정보강일         |
| 6. 14. ~ 20.   |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
| 6. 14. ~ 28.   |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입력                  |
| 6. 21.         | 하기휴가 시작                           |
| 7. 7.          | 2022학년도 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
| 7. 10. ~ 21.   | 2023학년도 2학기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
| 7. 28. ~ 8. 4. |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기간                |
| 8. 2. ~ 3.     | 2023학년도 2학기 희망과목담기                |
| 8. 8. ~ 10.    | 2023학년도 2학기 1차 수강신청               |
| 8. 14. ~ 16.   | 2023학년도 2학기 2차 수강신청               |
| 8. 22. ~ 25.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
| 8. 25.         |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늘 그렇듯이 지난 학기에도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관 개축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지의 학장 인사말은 사회과학 대학 모든 구성원의 지대한 관심사인 사회관 개축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시설환경이나 공간활용 등의 제반 측면에서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쉬움의 대상이었던 현재의 사회관이 머지않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점은 매우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회관 개축이 확정된 이후 사회관 개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대학 구성원들의 큰 관심사였던 새로운 사회관의 개축 부지는 현재의 사회관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축될 사회관은 지금처럼 예원정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개축 부지의 위치나 새로 조성되었을 때의 예원정 경관, 그리고 도서관 새벽별당으로의 연결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축 사회관은 대내외의 여느 건물 못지않은 훌륭한 공간적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관 부지에 사회관을 개축한다는 것은 사회관 개축 공사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이 교내의 다른 대체 공간으로 이전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시기와 공사 기간 및 대체 공간의 위치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학 본부와 협의에 따라 대체 공간은 제10공학관과 자연대 연구실험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 시기는 사회대 요구를 반영한 대체 공간의 리모델링 기간까지 감안하면 2025년 하계 방학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대략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공간으로의 이전은 이전 과정 그 자체도 매우 힘들지만 이전 기간 동안 교육과 연구 및 소통에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불편함이 수반될 것입니다. 사회대 집행부와 행정실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미리 잘 챙기고 준비하겠습니다.

사회관 개축을 위해서도 몇 가지 과정이 진행됩니다. 대학본부는 금년 5월에 개축 사회관을 설계할 업체를 공모하고 대략 90일 정도의 제안서 검토 기간을 거쳐 설계 업체를 최종 선정합니다. 사회대에서는 건물 외형이나 내부 시설 및 공간 활용 등을 포함하여 사회관 개축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개축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학장과 부학장, 7개 학과 학과장, 조교대표, 학생대표 및 행정실 실장, 팀장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수행할 일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학본부 및 설계업체에 사회대학 구성원의 요구사항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실에서는 교내외 대학 건물의 여러 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개축 사회관의 공간 구성에 참고할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회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과학대학 구성원 모두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개축되는 사회관이 외관과 시설 모두에서 장전 캠퍼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과학대학  
이재식 학장



## 신임교수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전미선입니다. 새벽별 도서관을 바라보며 출근길에 마시는 상쾌한 공기가 코끝에서 더 차가워질 때쯤 부산대에서의 첫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교수님과 교직원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한 학기 무탈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을 담게 된다면 처음 임용장을 받은 그 날을 넣고 싶습니다. 신임 교원으로서 벅차고 기쁜 마음과 잘 하고 싶다는 욕심만큼 잘 해내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쯤 항상 먼저 이 길을 가신 선배 교수님들께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걱정했던 마음이 무색할 만큼 다양한 석임의 기회 덕분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과 바다를 향해 한 배를 탔다는 소속감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학기의 허니문 같은 기억과 추억들이 원동력이 되어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지역과 학교에 봉사할 줄 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꾸준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학과  
전미선 조교수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의 이상백입니다. 부산대에서 설렘으로 가득했던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행복 가득한 학기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과 두루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가을의 연수와 신임 교원 연구 발표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랜만에 온 부산대에는 제가 오래전 잊고 있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산의 맑고 많은 산과 눈 앞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자연의 변화였습니다. 정신없이 보냈던 학기인 만큼 학교의 풍경도 순식간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시원한 가을, 춥지 않고도 깨끗한 겨울을 지나 어느덧 봄을 맞이합니다. 부산대의 봄과 여름은 또 어떠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 적응이 더더 고생하곤 합니다. 덤벼버리고 하지 않던 실수를 하고 어리바리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아마 이번 학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학교가 오히려 낯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가르침 청하겠습니다. 따뜻한 환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헌정보학과  
이상백 조교수

Carpe diem! 기필코 현재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며 통영의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 아래에서 교수님들과 진한 만남을 나누었던 지난 가을이 생각합니다. 그날, 멋진 인생 선배 박경리 작가님은 ‘창조를 하고자 하는 이는 슬픔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서 고민과 무거움이 많았던 제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여러 가지로 너무 서툰 우당탕탕의 저에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로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나누어주신 미소, 지혜, 정보, 격려, 애정, 그리고 맛있는 식사 덕분에 여기까지 잘 버티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수업과 학생들, 또한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통해 양가적인 감정과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조금 편해져 야유회를 하며 젊은 청년들의 내뿜어지는 열기를 느꼈던 밤, 이태원에서는 그 많은 열정의 불꽃들이 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들에 감탄하면서도, 상대평가 체제에서 서로가 서로보다 나아져야 하기에 칼날같이 예민해져 있는 아이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단합이 잘되는 학생회 친구들을 보며 뿌듯하다가도, 우울증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달리 도울 길이 없어 헛헛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아이들과 비폭력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실습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조금은 이 간극에서 저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저는 미디어와 사회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이제 부산 금정구민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신혜 조교수

2022년 2학기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등지를 튼 김범수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첫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늘 긴장과 설렘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부산대학교에서 첫 학기, 저는 긴장의 영역에 더욱 많이 머물러 있었으나 여러 사회과학대학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주셔서 부산대학교에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첫 학기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는 제가 지난 학기 새롭게 맺은 살아있는 관계로부터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얻게 되어 ‘소셜캐피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맺은 관계를 원만하고 결속력 있는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 늘 배우는 자세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사회관과 성학관을 오가며 사회과학대학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한 학문적 의견도 경청해서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학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범수 조교수

## 사회대 교수 연수회

사회대 교수 연수회가 10월 19일, 20일 양일 간 통영에서 개최되었다. 약 3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런치세미나 개최

| 일시 2022.9. 22.(목)

| 장소 사회관 110호

| 발표자

- 임영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_테마로 읽는 유럽 여행: 중세십자군/유럽소비에트 변방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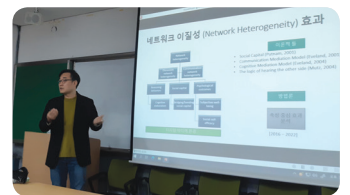
## 신임교수 발표회 개최

| 일시 2022. 11. 23.(수)

| 장소 사회관 110호

| 발표자

- 이신혜(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_다양한 매체 플랫폼과 준사회적 관계 이해하기
- 김범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_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표현



| 일시 2022. 12. 15.(목) 16:30

| 장소 사회관 208호

| 발표자

- 전미선(행정학과)\_지역과 불평등 그리고 정책
- 이상백(문헌정보학과)\_조선왕조지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국가출판 체계



## 사회대 취업 특강

사회대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울경 지역 공공 기관·중견기업 취업 특강이 9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5회에 걸쳐 성학관 101호에서 진행되었다. 각 기관 인사담당 경력사원의 조직 및 인재상 소개와 신입사원의 취업 성공기로 진행된 취업 특강은 사회대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취업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 참여기관

- 9. 15. 근로복지공단      • 10. 26. 한국자산관리공사
- 9. 28. 한국남부발전(주)      • 11. 9. (주)넥센
- 10.13. BNK 부산은행



## 사회대·인문대 학생 체육대회 개최

사회대·인문대 학생들의 교류와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10월 28일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약 2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혼성 계주,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축구 등을 통하여 승부를 겨루며 단합과 친목을 다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 대학 간 더욱 활발한 문화적, 학술적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박사학위 수여자

- 정현일 [사회학과/신지은]  
포용도시 담론의 형성과 구조

## 사회대 보직자 명단

|         |             |            |
|---------|-------------|------------|
| 이재식 학장  | 사회과학대학      | 2021.9.1.~ |
| 이원익 부학장 | 사회과학대학      | 2021.9.1.~ |
| 박희정 학과장 | 행정학과        | 2023.3.1.~ |
| 서재권 학과장 | 정치외교학과      | 2023.3.1.~ |
| 남재현 학과장 | 사회복지학과      | 2022.7.1.~ |
| 김영 학과장  | 사회학과        | 2023.3.1.~ |
| 주성준 학과장 | 심리학과        | 2022.8.1.~ |
| 노지현 학과장 | 문헌정보학과      | 2022.3.1.~ |
| 김호정 학과장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2020.9.1.~ |
| 이재식 원장  | 행정대학원       | 2021.9.1.~ |
| 정혜진 부원장 | 행정대학원       | 2021.9.1.~ |
| 이수상 원장  | 사회과학연구원     | 2021.3.1.~ |

## 사회대 평의회

|         |        |                         |
|---------|--------|-------------------------|
| 김비아 평의원 | 심리학과   | 2023.3.1. ~ 2025.2.28.. |
| 김진현 평의원 | 사회복지학과 | 2023.3.1. ~ 2025.2.28.  |

## 본부 보직교수 명단

|     |                        |                        |
|-----|------------------------|------------------------|
| 장덕현 | 기획처장                   | 2022.3.1.~             |
| 황성욱 | 부산대 언론사 주간             | 2022.9.1. ~ 2023.8.31. |
| 이용재 | 도서관장, 기록관장,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장 | 2022.9.1. ~ 2024.8.31. |
| 이동훈 | 홍보실장                   | 2022.7.25.~            |
| 이기영 | 부산대 평생교육원장             | 2023.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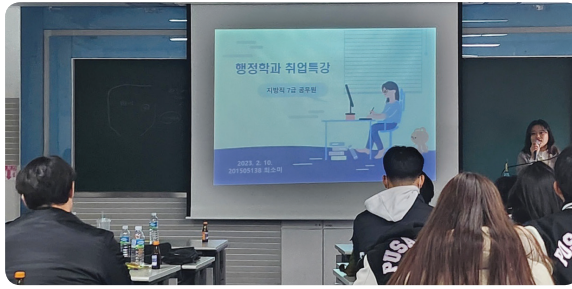
## 장기파견 및 연구년

|     |             |     |                        |
|-----|-------------|-----|------------------------|
| 유영미 | 사회복지학과      | 부교수 | 2022.7.1. ~ 2023.6.30. |
| 설문원 | 문헌정보학과      | 교수  | 2022.9.1. ~ 2023.8.31. |
| 이철순 | 정치외교학과      | 교수  | 2023.3.1. ~ 2024.2.29. |
| 황성욱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교수  | 2023.3.1. ~ 2024.2.29. |

## 휴직

|     |      |     |                        |
|-----|------|-----|------------------------|
| 설선혜 | 심리학과 | 부교수 | 2022.9.1. ~ 2023.6.30. |
|-----|------|-----|------------------------|

## 행정학과



### ◀ 2022학년도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행정학과에서는 2월 10일(금)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특강은 09학번 권익현(주택도시보증공사), 11학번 조현대(부산지방법원), 15학번 최소미(부산광역시청), 15학번 최승아(법무법인 국제), 17학번 김나연(국민연금공단)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매학기 개최하는 졸업생 취업특강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노하우 습득에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이다.

### 2022년 행정학과 학술제 ▶

행정학과는 11월 23일(수) 성학관 102호에서 2022년 행정학과 학술제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한 5팀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심사기준표를 바탕으로 채점하여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순위를 나누었다. 대상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파악'을 연구·발표한 「행정드림」팀(지도교수: 정혜진)이 차지하였다.



## 정치외교학과

### 2022학년도 2학기 정치외교학과 서평특강 ▶

2022학년도 2학기 정치외교학과 서평특강이 9월 30일(금) 사회관 2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동아대학교 정치·사회학부 홍성민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대상 도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정치학도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고전 중 하나이다. 매 학기 개최되는 서평특강은 학생들이 정치학 관련 고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 2022학년도 2학기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정치외교학과에서는 11월 16일(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특강은 14학번 임준형 졸업생(현대오일뱅크), 18학번 장세형 졸업생(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매 학기 개최하는 졸업생 취업특강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노하우 습득에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이다.

### 제14회 정치외교학과 학술제 ▶

정치외교학과에서는 11월 18일(금) 성학관 102에서 제14회 정치외교학과 학술제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한 4팀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이 심사기준표를 바탕으로 채점하여 1등부터 4등까지의 순위를 매겼다. 우승팀은 '프레임 정치를 넘어서: 한국 정당 정치의 악순환'을 연구·발표한 「H.A.W.K.」팀(지도교수: 민희)이 차지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뒤풀이까지 진행하여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가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사회복지학과



### ◀ 사회복지학과 2022학년도 공동실습 기관방문

2022년 10월 28일,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공동실습 기관방문이 다시금 진행되었다. 이번 기관방문은 진로 및 직무탐색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시기인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주 대상이었다. 공동실습 기관은 두 곳으로 월드비전 부산지역본부 및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되었다. 각 기관은 NGO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강 및 라운딩으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기관에서 준비한 일정이 끝난 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조언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 사회복지학과 2022학년도 학술제 개최 ▶

사회복지학과는 학부 학생들의 유대와 대학원생들과의 교류를 위해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제는 이틀간 진행되어 첫날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대외활동 참여학생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감을 발표하였고, 둘째 날은 현장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두 전문가가 토론을 통해 전달하였는데, 현장 특성에 따른 답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학술제는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 사회학과



### ◀ 2022학년도 사회학과 학술문화제

2022년 11월 10일 '2022학년도 사회학과 학술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문화제에서는 총 6팀이 참가하였으며,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쟁점', '아동인권보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사회학과 법학의 간극: 대우조선해양 파업사건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자유로운 캠퍼스 생활을 위한 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부산 청년 인구 유출 현황분석 및 해결방안', '대학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대학생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학술문화제 참가한 학부생들은 연구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과 현장을 탐방하는 등 열정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교수님들의 조언 및 격려로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2022학년도 동계방학 부산대 사회학과 졸업생 취업특강 ▶

2023년 1월 28일 사회학과 졸업생 취업특강이 개최되었다. 최근에 졸업하여 취직 및 대학원을 진학한 사회학과 졸업생(국토안전관리원 김동현, 코로링인더스트리 현상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임태영)을 강사로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 강사들은 본인의 취업 준비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취업준비중인 학생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심리학과



### ◀ 2022학년도 심리학과 학술제 개최

2022년 11월 25일(금) 「2022학년도 심리학과 학술제」가 성학관 102호에서 개최되었다. 학과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팀이 참가하여 각자 준비한 연구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대상은 '성격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대하는 일반인의 태도'를 발표한 2조가, 최우수상은 '과제 무관한 정서가 작업기억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1조와 'SNS가 간접 외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4조가 수상하였다. 나머지 2개 조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학술제를 통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적 교류를 강화하고 심리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22학년도 졸업생 초청 특강 개최 ▶

심리학과에서는 2022년 9월 6일, 2023년 2월 9일에 졸업생을 초청하여 진로 및 취업 특강을 성학관 102호와 사회관 401호에서 개최하였다. IBM 글로벌 세일즈팀에서 Client Technical Specialist로 재직 중인 윤찬경 동문은 '네덜란드에서 만난 Blue Wave'란 주제로 외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방법 및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구진주 동문은 '심리학과 전공생은 졸업하면 뭘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심리학을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평소 본인의 관심 분야를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노하우와 로스쿨 입학부터 변호사 취업까지의 경험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취업 특강을 통해 학부생들은 심리학 분야에 대한 이해와 취업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폭을 넓히고 전공 관련 최신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 및 취업 특강, 학술제, 견학을 개최하였다.



| 구분 | 프로그램명                                          |
|----|------------------------------------------------|
| 특강 | 미래가 걱정되는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상백 교수    |
|    | 국립대학도서관 사서가 알려주는 취업뽕수기: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소현 사서 외 1명  |
|    | 국가도서관을 꿈꾸는 당신에게: 국립중앙도서관 안수연 사서 & 국회도서관 양성령 사서 |
| 학술 | 2022년 문헌정보학과 학술제: Wanna One 외 3팀               |
|    | 2022년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견학                            |
| 견학 | 제 59회 전국도서관대회                                  |
|    | 문헌정보학과 독립서점 탐방                                 |

특히 2022년 10월 6일 ~ 8일, 2박 3일간 시행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포함하여 서울도서관, 카이스트도서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리움미술관을 방문하였다. 관종별 도서관을 방문하여 각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서의 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문헌정보학과 BK21 국제학술대회 및 성과교류회 ▶

2023년 1월 26일(목)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문헌정보학과 BK21 국제학술대회 및 성과교류회가 '위기에서 도전으로: 코로나 이후 해외 대학도서관 서비스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듀크 대학교 구미리 사서의 사회로 시작한 국제학술대회는 1부에서는 하버드대학교, 토론토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등 북미권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부는 프랑스 파리시테대학교, 런던대학교, 셰필드대학 사례를 발표하였다. 국제학술대회 이후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학기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및 기록관리학전공,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에서 생산한 연구물을 대상으로 「2023 우수연구 공모전」 시상식 및 우수연구발표회도 열렸다. 출품된 총 15편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이 선정되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202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취업 및 진로설계 특강

단과대학 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미래커뮤니케이션특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학 유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취업 및 진로설계를 위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에는 부산MBC, KOBACO, GS리테일, KT(스포츠 마케팅), 작곡가(음악감독), 팬엔터테인먼트(드라마 제작) 등 20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강을 맡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학부생들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취업과 진로설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술제 ▶

2022년 11월 24일(목) 성학관 102호에서 "202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학과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이 참여하여 한 해 동안 준비한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개인 부문에서 틀비틀(대표 양은찬, 단편영화 '기도문')과 결초보은(이보은, Better Beautiful Go, 갓생전략서) 팀이 최우수상을, 연구회 부문에서는 영화연구회(회장 이영서, 블랙박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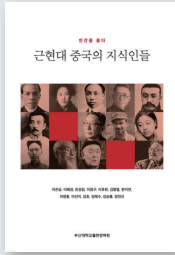
2022년 10월 8일(토)~9일(일) 벅스코에서 열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을 참관하였다. 영화, 영상 콘텐츠를 비롯하여 도서, 웹툰, 웹소설, 스토리 등의 원천 IP를 거래하는 종합 콘텐츠 시장으로 투자 및 공동제작 마켓, 영화 제작 지원,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최신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 11월 18일(금)은 KNN과 G-STAR를 견학하였다. KNN 견학에서 KNN 뉴스아이와 예능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 내부를 둘러보고, 크로마키 촬영을 체험하는 등 방송제작 현장과 라디오 제작현장을 둘러보았다. G-STAR는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한 출판,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사업화 전략을 둘러보는 자리였다.

사회과학연구원

제3회 키타큐슈시립대학-부산대학교 국제심포지움 개최 ▶

사회과학연구원은 2023년 2월 9일 키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와 국제심포지움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와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도 함께 참여하였다. 문헌정보학과 임여주 교수는 '공공도서관 지역커뮤니티 지원 사례 연구'를 주제로, 사회복지학과 이원익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편 키타큐슈 대학에서는 미나미 히로시 교수가 '키타큐슈 시민의 참여와 커뮤니티 정책의 현재와 과제'를 주제로, 이금동 교수가 '초고령사회 축소도시의 커뮤니티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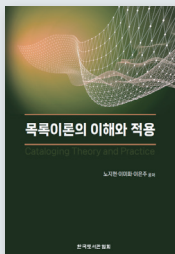
##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 차창훈 외 12명 지음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2022

이 책은 2021년 부산대 K-MOOC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인간을 묻다’의 산물이다. 20세기 중국사를 파악하기 위한 키워드로 인물 그 중에서도 지식인의 삶, 그리고 그들이 저술한 고전을 텍스트로 당시의 시대적 고민과 사명을 이해해보려고 하였다. 특히 혁명의 핵심 주류 인물 혹은 정치 지도자보다는, 삶의 궤적이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지식인들에게 관심을 두었다. 이에 박제된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좌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 열전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이제한 지음 | 태일사 | 2023

이 책은 모두 6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글에서는 도서관에 내재하는 철학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반추하면서,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서의 직업적 책무와 전문적 역량에 대해 다루었다. 두 번째 글은 한국인의 도서관 인식에서 두드러지는 후진성과 그러한 후진성을 구조화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글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사회에서 소수자가 겪는 정보빈곤의 양태를 소개하면서 학계의 소수자 연구와 도서관의 소수자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글에서는 고령자 집단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정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의 책무와 서비스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섯 번째 글에서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착적인 방안을, 마지막 여섯 번째 글에서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록이론의 이해와 적용 노지현, 이미화, 이은주 지음 | 한국도서관협회 | 2023

정보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효율적인 접근을 지원하는 데 있다. 즉,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자원을 탐색하고, 정보자원이 가진 주요 속성을 식별하고, 다른 정보자원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과정이 정보조직이다.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정보조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목록(catalog)이다. 목록의 작성과정(cataloging)은 다시 기술목록법(descriptive cataloging)과 주제목록법(subject cataloging)으로 구분되는데, 이 책에서는 주로 ‘기술목록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특히, 논리적인 개념모델의 설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무 적용방법론까지 토피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목록의 전체적인 맥락(context)을 이해하고, 개체-관계모델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의 목록법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한국 언론 직면하기: 생태계, 정파성, 거버넌스, 자율규제, 리터러시 이정환, 조항제, 심영섭, 김동원, 김양은 지음 | 자유언론실천재단 | 2022

〈한국 언론의 고질, 정파성과 그 극복 방안으로서의 공정성〉, 한국 언론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파성일 것이다. 중요한 순위로도 정파성은 아마 최우선에 놓일 것이다. 권력의 향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파적 언론은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한국에서 유독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정도가 극심해서이다. 언론에도 조정기능이란 게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 기능은 거의 발휘되지 못한다. 언론 또한 정치만큼 상대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공정하다면 정치도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극단적 파쟁이 줄며 정치 본연의 협상 기능이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을까? 상대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존중도 같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글은 이런 방법을 논구(論究)한다. 가장 나쁜 행위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사실조차 왜곡하는 것이다. 다음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보도의 준칙을 간과하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이 그 다음쯤 될 것이다. 뗏목이 아닌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하고 정파적인 언론의 단면이다. 이런 언론을 일부 수용자는 ‘시원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한국 정치는 멍들고 못사람들에 의해 ‘4류’로 손가락질 받는다.



## 저널리즘 다시 보기: 15개의 이슈들 김범수 외 14명 지음 | 남남 | 2022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 소속 연구자들이 오랜 협업 끝에 저널리즘을 쉽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저널리즘 안내서다. 또한 위기에 빠진 저널리즘의 현장에서 관찰되는 이슈들을 성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론과 연구, 현장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15가지 핵심 이슈를 이론과 실천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봤다. 저널리즘 개념에 대한 성찰부터 뉴스 생산, 사회관계에 관한 핵심 이슈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널리즘,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등 새롭게 떠오른 주제들까지 포괄했다. 이론적 배경에서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각기 독립적 영역에서 다뤄진 연구주제들을 상호보완적으로 논의한 것도 이 책의 강점이다. 이를 통해 각 연구영역이 지닌 고유한 속성을 재발견함으로써 저널리즘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 행동신경과학: 생물심리학 입문 Laura A. Freberg 저 | 김문수, 남종호, 박세열 역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2

행동과 신경계 활동의 연결성이 밝혀진 이래로 심리학의 연구 범위는 신경계까지 확장되었다. 행동신경과학은 이러한 심리학의 변화를 반영한 학문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동신경과학은 질환 및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질문에 생물학적 근거를 들어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행동신경과학 지식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 책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경계와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